발길 이어지는 임윤택 주모

메트로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조작논란 속타는 '정글의 법칙'

가짜홈피 만든 대담한 짝퉁

NEWS p/02

저소득층 빚내서 주식투자

NEWS p/03

단 10장면으로 뜬 정한비

metro

메트로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제2669호 www.metroseoul.co.kr

주신수 연봉 80억 사나이

우라늄 폭탄? 플루토늄 폭탄?

李대통령·朴당선인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견지" 23분 회동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풍계리서 11시57분50초에 규모 4.9 인공지진 유용규 기상청 지진감시과 사무관이 12일 서울 대방동 기상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3차 핵실험 강행…HEU 사용했다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더 근접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12일 기상청은 오전 11시57분50초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관측된 진앙지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도다. 앞서 1~2차 핵실험이 진행됐으며 3차 핵실험이 예상됐던 풍계리 인근이다.

정부는 곧장 북한이 핵실험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오후 2시 35분께 북한의 핵실험을 공식 확인했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북한도 2시43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형화·경량화한 성공적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번 실험이 역대 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큰 진도 4.9, 폭발력 6~7kt(킬로톤·1kt은 TNT 폭약 10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절반 정도의 위력이다. 1차 실험은 진도 3.6에 폭발력 1kt, 2차 실험은 진도 4.5에 폭발력 2~6kt가량이었다.

또 군은 이번 실험이 플루토늄 방식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을 병행했거나 HEU 방식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해서는 HEU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 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은 경계태세를 3급에서 2급으로 격상했으며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태세 '워치콘'을 한 단계 상향하고, U-2 고공전략정찰기의 정찰 횟수와 정보분석 요원을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인공지진파에 대한 분석작업과 함께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오후 1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도발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도 "새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 현 정부·야당 측과 공조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11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핵실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한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인터넷 세상 '잊혀질 권리' 법으로 만든다 신상털기 악용 개인저작물 삭제 추진

검색엔진을 통해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삭제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절차가 복잡해 일반인이 구제받기 쉽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1월 전 세계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유럽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삭제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유정화기자 unique@

정부 허리띠 더 바짝 기본경비 10% 삭감

정부가 장기 불황에서 국민과 고통 분담을 위해 정부 부처의 기본 경비 10%를 일제히 삭감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모든 부처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 제출한 경비 절감 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는 출장·급식·교육 등 행정 경비와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등을 줄여 2300억원을 아끼기로 했다. 절감된 경비는 경기 회복이나 복지 수요 충당 사업비로 쓸 예정이다.

올해 확정 예산 342조원 중 각 부처의 기본 경비 총액 2조3661억원은 0.7%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내기' 차원의 절감 계획이다.

/채동호기자 eiraan@

선박왕 징역4년 법정구속

'선박왕' 권혁(63) 시도상선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200억원대 세금을 탈세하고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12일 선고했다. 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 척을 보유한 5조원대의 자산가로 "한국의 오나시스" '선박왕'으로 불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실히 납세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연간 16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를 회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납세 의무가 없었다는 권 회장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가짜 홈피까지 만든 간 큰 짝퉁

이탈리아 명품 베껴 6000점 유통 1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서울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최근 압수한 중국산 짝퉁 등산복 1800여 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산 6000원짜리 등산복 30만원에 판매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공식 수입업체로 위장해 중국산 등산복을 팔아온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상표를 출원하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해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국에서 만든 등산용 점퍼 등 6000여 점을 국내에 유통시킨 A(54)씨를 적발해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미 운영 중인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와 비슷하게 꾸며놨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했다. 마치 이탈리아 본사에서 상표권을 취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

A씨는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해 지역 총판 6곳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한 짝퉁 제품은 총 6000여 점에 달한다.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억원 수준이다. 수입원가가 6000원에 불과한 등산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팔아 챙긴 부당이득만 약 4억원이다.

◆ "혹시 내 옷도" 5000점은 이미 전국 산악회 동호인에 팔려

세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총판을 덮쳐 보관 중인 짝퉁 1000점을 압수했다. 나머지 5000여 점은 각 총판들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전국 산악회 동호인에게 팔려 나갔다.

한편 세관 측은 지역 총판업자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유용배 세관 수사관은 "지역 총판업자도 피해자여서 입건할 수 없다"고 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한류의 힘' 지난해 문화·오락수지 첫 흑자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오락수지가 역대 첫 흑자를 냈다.

한국은행은 국제수지의 한 부분인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355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고 12일 밝혔다. 영화와 음악 등 한류산업을 포함한 이 분야에서 흑자를 거둔 것은 1980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특히 드라마를 비롯한 TV 프로그램과 K-팝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류의 산업적 효과가 통계로 증명돼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장윤희기자

① 신문 배포대에서 메트로신문을 집는다
② 오늘의 복코드를 찾고 오늘의 상품을 확인한다
③ 복코드 앱을 휴대폰에 내려받아 실행한다
④ 스캔하기 버튼을 누르고 오늘의 복코드를 스캔한다
⑤ 스크래치 카드를 긁어 당신의 행운을 확인한다

긁을수록 커지는 행운

출근길 선물 주는 '메트로신문 복코드'앱 인기

메트로신문이 독자들의 새해 큰 복을 기원하며 준비한 '복코드' 앱이 화제다.

메트로신문에 매일 새롭게 게재되는 복주머니 컬러 코드를 복코드 앱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스크래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매일 바뀌는 오늘의 상품과 실시간 잔여 수량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지르면 복권을 긁는 것처럼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알려준다. 매일 기회가 주어지고,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광고를 보면 참여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최근에는 평균 30회 응모에 당첨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코드' 앱은 안드로이드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iOS 버전도 곧 앱스토어에 론칭된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매일 새로운 경품을 제공하는 '복코드'앱은 어려운 출근길을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로 직장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배동호기자

본 이벤트는 ㈜메트로신문사와 ㈜모바일미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고물상에서 찾은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 얼굴 부분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전문가 장자크 페르니오가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 모델로 추정되는 여성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들고 있다. '세상의 기원'은 얼굴이 가려진 여성의 하반신과 허리·가슴 등을 사실적으로 그린 유화다. 페르니오는 "얼굴 그림에 쿠르베의 서명이 들어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기원'에서 떨어져나간 부분으로 보인다"며 "쿠르베가 모델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 부분을 잘랐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7일 주간지 파리마치가 아마추어 수집가가 고물상에서 구입한 그림을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이 그림이 진본으로 확인될 경우 4000만 유로(약 600억원)를 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뉴스

소행성 16일 지구 스쳐간다

새벽 4시34분 서울 상공 3만300㎞까지 근접

지름 45m의 소행성이 16일 새벽 지구를 스쳐 지나갈 전망이다.

12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24분께 지름 45m 크기의 소행성 '2012 DA14'가 지구 가까이 접근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농구장 두 배 정도 크기의 이 소행성은 총알보다 10배 빠른 초당 7.8㎞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중"이라며 "우리나라에는 16일 오전 4시34분께 3만300㎞까지 가장 가깝게 접근한다"고 예상했다. 또 "이 같은 크기의 소행성은 소행성 관측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처음"이라며 "소행성은 지구와 지구 주위를 도는 정지궤도위성 사이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접근 소행성 '2012 DA14' 위치

이 소행성은 위성이 많지 않은 궤도 공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구와 충돌하거나 인공위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희기자 unikus@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영화 '쉬리' 개봉

1999년 2월 13일 강제규 감독, 한석규·최민식·송강호·김윤진 주연의 영화 '쉬리'가 개봉됐다. 제작비 24억원의 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이전까지 한국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외화 '타이타닉'의 226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개봉 1년 동안 621만 명이 관람했다. 살인 병기인 북한 공작원과 남·북한 정보요원 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쉬리'는 일본에서도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홍콩·북미 등 15개 지역에서 500만 달러를 수익을 올렸다.

저소득층 위험한 베팅

소득하위 20%가구 빚내서 주식투자 2년새 17배 늘어

빚을 내 주식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일사 일용직 등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 규모를 크게 키웠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증권투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부채 보유 가구당 3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15만9000원보다 96.4% 증가한 금액이다.

담보는 거주 중인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펀드, 채권 등이었다. 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도 가구당 11만2000원에서 24만원으로 배로 불어났다.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층과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가구가 증권투자 목적으로 빌리는 돈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증권투자 목적 담보 및 신용부채 합계는 2010년 가구당 1만1000원에서 지난해 18만9000원으로 2년 사이 1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중위권(40~60%) 가구의 관련 부채는 6만8000원에서 18만6000원으로 2.7배로 느는 데 그쳤다. 상위 20% 가구는 가구당 56만2000원에서 124만1000원으로 67만9000원 증가했다.

임시 일용직 가구가 증권투자금으로 대출한 금액은 1만1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118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선훈기자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4월부터 전격 중단

가계부채 증가의 원흉으로 지적돼 왔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4월부터 중단된다. 앞으로는 카드 사용자들이 자동안분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 나눠 갚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4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무료로 할부 혜택까지 주면 가계 빚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금융 당국의 판단에 카드사들이 수긍한 결과다. /김재성기자 lazyhand@

北핵실험 뉴스 관심 집중 한 시민이 12일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진열된 TV를 통해 북한 3차 핵실험 강행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中 '원조 축소 카드' 쓸까

대북 제재수위 관심… 안보리는 현금 차단·선박 검색 강화 유력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구체적인 제재 방안 논의에 들어가는데 지난달 23일 채택한 2087호 결의안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2087호 결의안에서 예고한 '중대 조치' 중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즉 금융 제재 범위를 확대해 북한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선박 검색으로 핵·미사일 관련 물자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대북 군사 조치가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1·2차 핵실험 때 유엔헌장 7장에 따라 41조(비무력적 조치)만 취하도록 한 결의문(1718·1874호)에서 나아가 42조(무력적 조치)를 포함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

◆中 "만류했는데 강행" 불만

더 큰 관심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외에 독자적인 제재를 할지 여부다.

중국은 적극적인 만류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원조 축소 등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강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일 차원의 제재 논의는 '돈줄 죄기'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에 취한 2차적 보이콧 방식(북한 금융기관 및 이와 거래하는 금융기관 제재)과 방코델타아시아식(북한 은행 계좌 동결)이 거론된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상호존중·배려하면 각종범죄 사라질것"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이하 상존배)는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5대 실천과제로 상호간 존중하는 언어 사용, 겸감어린 인사말 하기, 경청하고 칭찬하기, 공중도덕과 질서 지키기, 나누고 봉사하기를 제시했다.

예비역 중장 출신인 정두근 상존배 총재는 32사단장 재임 중 겪은 군부대 사고를 계기로 군대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호 존중과 배려 운동'을 도입했다.

정 총재는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자 2010년 전역 후 마음에 상존배를 설립했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법무부 제의로 전국 소년원을 돌며 강연을 펼쳤다"고 말했다. 또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뜻을 같이하는 이웃이 있다(德不孤 必有隣-덕불고 필유린)는 논어 글귀처럼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에 함께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mrrc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illegible]기자

金외교 안보리 규탄성명 직접 발표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월 순회 의장국으로서 북한 규탄 성명 채택을 주도한다.

정부는 12일(한국시간) 북한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국 대표로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2일 오전 9시(한국시각 오후 11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이번 긴급회의에서 북한 규탄 성명 초안을 조율한다. 관례에 따라 김숙 유엔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후 언론에 발표하는 성명은 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에는 핵실험이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규탄하는 내용과 추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리기자

국방위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시아 안보와 국제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는 국제사회의 제재 마련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QR찍고 커피
무료 쿠폰받으세요~
롯데리아
착한 남자의
착한점심,
₩2,900 데리버거세트
₩3,900 랏츠·새우·치킨버거세트
₩4,900 한우콤보·유러피언 프리코 치즈버거세트
핫크리스피버거세트
2013.2.1 ~ 2.28 오전11:00 ~ 오후2:00

야동에 약한 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 3배↑

"모바일기기 해킹에 취약"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포르노를 보면 해킹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미국 보안업체 블루코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키는 악성코드의 4분의 1 정도가 포르노 사이트에서 나왔다.

전체 모바일 트래픽 중 포르노가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하지만 그 사이트가서 내려받기를 할 경우 다른 사이트에 비해 악성코드에 감염될 확률은 3배나 높다. 포르노 사이트에 악성코드가 잠복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모바일 기기의 보안은 일반 PC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특정 사이트를 방문할 때 정상 사이트와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은 점도 감염 우려를 높인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웹사이트 주소가 단축 형식으로 표시돼 정상적인 사이트인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블루코트는 이와 함께 PC에서도 포르노가 악성코드의 1차 감염 경로였으나 이후 피싱이나 악성코드 광고 업로드 등 감염 경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 것처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도 조만간 이런 방법들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북한 핵실험 소식에 日 조비상 12일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가 도쿄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써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AFP 연합뉴스

<한국공군 제작 동영상>

"레밀리터리블은 제2의 강남스타일"

NYT "전염성 강하다" 평가

한국 공군이 제작한 '레미제라블' 패러디 동영상 '레밀리터리블'의 인기가 해외에서도 뜨겁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동영상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만큼이나 전염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레밀리터리블'은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지 닷새 만에 조회수가 300만 건에 달했다. 특히 영화 '레미제라블'의 배우 러셀 크로가 트위터 팔로어들에게 이 동영상을 리트윗한 것이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3분짜리 이 동영상은 레미제라블의 첫 장면을 패러디해 공군 장병들이 "제설 제설 삽을 들고서"라고 합창하며 눈보라에서 눈을 치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NYT는 과거 한국군이 병사들에게 강제로 시킨 시역의 노동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군 병사들이 2년여 걸친 복무기간에 서로 힘을 합쳐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차별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선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등록인·발행인 김규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진호
광고국(전)·지의 김한응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80
독자센터 (02)721-9862

today metro global 지금 중국?

개 전용 혼인증명서

열기구 위 프러포즈

수은범벅 붕어 공포

스윗박스 고객 모두에게 CGV가 쏜다!

☆ 3명 미국 / 베트남 / 중국 커플 여행상품권 (각 나라당 1쌍 / 총 1,000만원 상당)

☆ 200명 엠플햄 스페셜 에디션 커플 후드티

☆ 모두 스윗박스 1만원 주중 이용 쿠폰(2매)

파이팅 02

솔로들이여!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솔로들은 외로워 말고 커플과 함께 CGV로! 커플들은 둘만 즐기지 말고 솔로와 함께 (3명 관람 시 2명 요금 16,000원 적용)

2+1

파이팅 03

포토티켓으로 사랑을 간직해봐

나만의 티켓도 만들고, 영화 관람권도 받고!

포토티켓 이용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영화관람권 증정

나만의 포토티켓 만들기

온라인 예매 후 CGV 홈페이지에서 포토티켓을 꾸민다

CGV 티켓판매기에서 포토티켓을 출력한다

Valentine in CGV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cgv.co.kr

CGV

KOSPI

2/5	2/6	2/7	2/8	2/12
1938.1+	1936.16	1931.77	1950.90	1945.79 −5.11

KOSDAQ

2/5	2/6	2/7	2/8	2/12
498.16	502.58	501.72	504.94	503.72 −1.22

Nikkei (일본) 11369.12 (+215.96)
Hang Seng (홍콩) 23215.16 (+38.16)
Shanghai (중국) 2432.40 (+13.87)
Dow Jones (미국) 13971.24 (−21.73)

EXCHANGE RATE

달러	1092.00
엔(100)	1161.21
유로	1460.56
위안	175.21

상반기 9만4000가구 취득세 감면 받을듯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 올해 상반기 입주를 앞둔 전국 9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작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부동산써브는 올해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전국 9만47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훈기자

일수 걷는 은행… 영세상인 화색

매일 1~2만원씩 상환 대출상품 요즘 인기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45)씨는 요즘 "일수를 찍는다". 돈을 빌린 뒤 매일 조금씩 갚아나간다는 뜻이다. 그가 하루에 찍는 일수는 1만8000원 정도다. 자영업자가 일수 찍는 건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수를 찍는 곳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이처럼 원금을 매일 조금씩 나눠 갚는 은행 대출 상품이 인기다. 12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내놓은 '매일매일 부자대출'은 이달 5일까지 약 넉 달간 973억원 나갔다. 평균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밑도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높다.

사업 기간이 1년을 넘는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대출 대상이고 신용도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원하는 금액을 하루 단위로 갚을 수 있지만 이자만 제때 내면 원금은 밀려도 연체로 치지 않는다.

대구은행이 지난해 5월 내놓은 'DGB 희망 일수대출'도 올해 1월 말까지 모두 41억원어치가 팔렸다. 대출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원금은 1개월 이상 밀리지 않으면 연체로 잡히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 일수 대출 상품이 등장한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은행 문턱을 넘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호기자 kyyhan@metroseoul.co.kr

걸을수록 기부 '빅워크 업 켜세요!' 홈플러스의 사회공헌재단 e파란재단은 12일 건강한 걸음 건강한 기부 빅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고객이 기부 앱을 켜고 100m를 걸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걸음이 불편한 아이들에게 의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장 49%·사원 26% "퇴사 압력 받아봤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1월 29일~2월 6일 직장인 13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9.1%가 회사에서 퇴출 압박을 받았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부장급(49.2%)이 가장 많았고, 과장급(37.6%), 임원진(28.1%), 대리급(27.9%), 평사원(25.9%) 등이 뒤를 이었다.

방식(복수 응답)은 과도한 양의 업무(27.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에서 제외(23.4%), 안 좋은 소문(22.9%), 은근한 왕따(22.7%), 연봉 삭감이나 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18.8%), 관계없는 부서로 재배치(16.1%) 등의 순이었다. /박성훈기자

국내 증시, 북핵실험 여파 미미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지수가 12일 북한 핵실험 소식에 하락 반전했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1950.90)보다 5.11포인트(0.26%) 내린 1945.7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1950선에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북한 함경북도 길주 인근에서 4.5도 강도 지진파가 탐지됐다는 소식에 하락했다. 이날 상승 출발한 코스닥지수 역시 낮 12시17분께 약세로 전환된 뒤, 전 거래일(504.94)보다 1.22포인트(0.24%) 하락한 503.72에 마감했다.

핵 실험 소식으로 방위산업주는 급등한 반면 남북경협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치호기자

보아오포럼 이사된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의 이사가 된다.

12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4월 초 중국 하이난다오의 휴양지인 보아오에서 열리는 이 포럼 12차 연차총회에서 새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아온 이사직을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기자

"동태 1마리 단돈 1100원" 롯데마트는 12일 정부비축분 동태를 1마리(600g 내외) 1100원에 선보였다. 전 량이 러시아산이다. /연합뉴스

i30·아반떼 떨고있니?

수입차 한국공략 '2라운드'… 포드 '포커스' 등 준중형 모델 상륙 러시

중대형 이상 세그먼트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수입차가 준중형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산 준중형 모델도 수입차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수입차 브랜드는 준중형급 모델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모델이 포드의 '포커스'다. 포드를 대표하는 모델 중 하나인 포커스가 2.0 디젤 엔진을 장착한 채 한국 시장에 상륙했다.

이미 포커스는 유럽에서 이 부문 전통의 강자인 폭스바겐 '골프'를 제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영국에서 지난해 포커스는 8만3115대가 판매되며 6만2021대를 기록한 골프를 가뿐히 넘어섰다.

비결은 가격 대비 뛰어난 상품성이다. 포커스 디젤 모델은 17.0㎞/ℓ(복합)에 이르는 연비를 실현했다. 골프 2.0L TDI(16.2㎞/ℓ)보다 뛰어나다.

동력 성능에서도 최고 출력 163마력, 최대 토크 34.7㎏.m를 마크해 동급 모델 중 가장 뛰어나다. 그럼에도 가격은 2990만원이다. 골프(2.0L TDI)보다 300만원가량 싸다.

통상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가격 할인폭이 큰 점을 감안하면 i30과 같은 국산 준중형과 가격 차는 500만원대로 좁혀진다.

BMW 미니 역시 소리소문없이 국내 준중형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미니는 원래 개성이 강한 소형차를 의미하는 브랜드였으나 최근 몇 년 새 '클럽맨', '컨트리맨' 등 중형 모델 수준의 차를 선보여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미니는 5927대를 판매해 어지간한 국산 단일 모델보다 나은 성적표를 들어 올렸다.

여기에 푸조 '206', 시트로엥 'DS 시리즈', 피아트 '친퀘첸토 500' 등이 출시표를 던졌고 럭셔리 브랜드 벤츠도 소형 세그먼트인 A시리즈를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준중형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데다 연비와 동력 성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호응이 예상된다. 이들의 선전 여부에 따라 수입차 점유율 20% 돌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소비위축 10년만에 최악

소득중 소비지출율 59% 생필품 구입비마저 줄여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만원을 벌었다면 이 중 소비로 쓴 돈이 60만원도 되지 않았다. 불황으로 지갑을 굳게 닫았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것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비가 줄었고 심지어 생필품 소비마저 줄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작년 3분기 월균 소득 414만1859원 중 식료품 등 소비지출은 246만7121원으로 59.6%에 그쳤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가 나온 최근 10년 동안에는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규모가 줄고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로 살림에 여유가 없다 보니 씀씀이를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필품 소비에도 지갑이 닫혔다. 작년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 역시 -3.3%로 집계돼 지난 8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박상현 상무는 "심지어 고소득층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이 감소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소득도 줄면서 소비지출을 줄였다"고 진단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스타렉스, 해외서 알아주는 중고차 1위

국산 중고차 가운데 현대차의 승합차 '그랜드 스타렉스'가 해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로 조사됐다.

12일 국내 1위 중고차 업체 SK엔카가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오픈마켓인 오토위니닷컴에 등록된 해외 바이어 문의를 집계한 결과 승합차인 그랜드 스타렉스가 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위인 SUV 스포티지R(399건)보다도 2.5배 이상 많은 것이다. 3, 4위에는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끄는 준중형차 아반떼MD와 중형 세단 NF쏘나타가 차례로 올랐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가장 많은 문의를 쏟아내는 국가는 러시아로 전체의 23.3%에 달했다. 리비아와 가나가 각각 9%로 그 뒤를 이었으며 나이지리아(6.4%), 파키스탄(6.1%)에서도 많았다. /박상훈기자

졸업·입학 샴페인 밸런타인 초콜릿 강강술래가 쏜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졸업과 입학을 맞은 고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는 축하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다음달 5일까지 졸업·입학생 동반 시 음료수를 무료로 주며,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흥점은 다음달 4일까지 한우육회를 서비스로 제공하며 서초점과 신림점은 음료수 또는 샴페인을 무료 증정한다.

홍대점은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졸업·입학생 동반 시 모든 구이 메뉴를 30% 할인해준다. 또한 밸런타인데이인 14일 하루 동안 남성 고객 전원에게 초콜릿 꾸러미를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www.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간편가정식 한우사골곰탕과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를 2월 말까지 30% 할인 판매한다. 곰탕 대용량세트(500㎖·5팩·15인분)는 3만7300원, 소용량세트(350㎖·5팩·10인분) 2만2000원, 육포(50g·6봉)는 2만52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제주신라에서 '고품격 힐링여행'을!

제주신라호텔 최고의 휴식 '위버힐링 S패키지' 꾸러미

제주신라호텔이 대자연 속에서 최고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위버힐링 S패키지'를 2월말까지 선보인다.

최고의 힐링 여행을 뜻하는 위버힐링에 라이브러리 콘셉트로 디자인된 라운지 S의 VIP 서비스를 추가한 고품격 휴식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것이 'S키 서비스'.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6시간 동안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호텔에서 부담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라운지 S에서는 치와 음료, 마카롱·쿠키·초콜릿 등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머리는 차갑고 몸은 따뜻한 노천 스파도 매력적이다. 사계절 야외 온수풀과 자쿠지가 있는 윈터 스파존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라이브 공연을 감상하며 수영과 스파를 즐길 수 있다. 해변에 위치한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는 따뜻한 밀크티와 함께 겨울 바다를 감상할 시간을 선사한다.

GAO 겨울 레저 프로그램(눈썰매 트래킹·스노슈잉·감귤 따기·딸기 따기·노르딕 워킹·올레길 걷기 중 택 1)이나 키즈 프로그램도 2인 기준으로 1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패키지 오션뷰 객실 1박, 조식 2인, 실내 사우나 2인 1회 무료, 수영복 무료 대여 등의 혜택이 포함돼 있다.

제주 뮤직 아일 페스티벌 기간(15~23일, 월요일 제외) 동안 투숙하는 패키지 고객에게는 금난새 지휘자가 이끄는 제주 뮤직아일 페스티벌 입장권 2매를 제공한다. 문의: www.shilla.net/jeju 1588-1142

/박지원기자

100자 브리핑

■ 제일모직의 남성복 브랜드 갤럭시가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야구 대표팀에 정장 단복을 협찬한다. 대표팀이 야구 역사에 전설로 남길 바란다는 뜻을 담아 '레전드 슈트'를 특별 제작했다.

■ 침구 브랜드 이브자리가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을 통해 '2013 상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행을 비롯해 빠르게 걷기, 오래매달리기, 턱걸이 등 건강관련 과정도 진행한다.

설선물 양극화… 어중간한 대형마트 죽쑀네

백화점·편의점은 매출 늘어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성적표가 나왔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대형마트는 울고, 백화점과 편의점·온라인 쇼핑몰은 웃었다.

이마트는 설 행사를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마트도 대부분 품목에서 판매가 부진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5.7% 감소했다. 홈플러스도 설 매출이 3.3% 떨어졌다.

대형마트의 선물세트 판매가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 속에 소비자들이 선물 구입을 줄인 데다, 올해 저가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은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로 선물 구매가 분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CU는 2만~3만원대 저가형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어 설 선물세트 판매가 지난해보다 25% 늘었다고 밝혔다. 롯데닷컴 또한 지난해보다 16%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백화점 고객들은 지갑을 닫지 않았다. 롯데백화점은 모든 점포 기준으로 11.7%, 현대백화점 또한 전점 기준 10.6%, 신세계백화점 역시 전점 기준 10.4% 매출이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1인당 구매 금액은 줄었지만 4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은 잘 팔리는 등 불황 속 소비가 양극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고 풀이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2013학년도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서울캠퍼스]

접수마감 : 2월 말 | 문의 : 02-390-5261~3

구분	내용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전과목, 사회복지사 2급 및 건강가정사 자격취득
아동학	보육과정 등 20과목 보육교사 2급 취득 가능
경영학	경영학개론 등 26과목
경호비서학	경찰행정학 등 26과목
연기학부	기초연기1 등 20과목(연극학)
서비스산업학부	호텔카지노경영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국제의료관광학과 등 3개 전공
관광학부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학과 등 3개 전공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부	패션모델학과, 방송연예학과 공연제작학과, 연예매니지먼트학과 미디어영상학과, 미용예술학과 등 5개 전공

www.kyonggiedu.ac.kr

잘 팔리는 명품순위 온-오프라인 다르네

온라인몰에서 잘 팔리는 명품은 따로 있었다.

오픈마켓 11번가가 자사 명품 전문관 '디-럭셔리11'의 지난해 명품 판매를 분석한 결과, 지방시·입생로랑·발렌시아가 각각 1·2·3위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에서 인기가 높은 샤넬과 루이비통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브랜드 가치는 물론 가격적인 혜택,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프레스티지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고 신상품 입고가 빠른 프라다가 4위를 차지했고, 페라가모·끌로에·구찌·발리·비비안웨스트우드·토리버치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

/박지원기자 pjw@

놀부닷컴, 종합쇼핑몰로 대변신

NOLBUU.COM 안진호 안트리 대표 "다음달 4월 리뉴얼 오픈…국내 최대 온라인몰로 키울것"

패션잡화 쇼핑몰 놀부닷컴이 종합쇼핑몰로 거듭난다. 놀부닷컴을 운영하는 안트리의 안진호(사진) 대표는 12일 올해 새롭게 종합쇼핑몰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6개월 동안 기존 인터넷 쇼핑몰을 대대적으로 개편, 오는 3월(4월) 종합쇼핑몰 놀부닷컴(nolbuu.com)을 새롭게 리뉴얼 오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놀부닷컴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제조 유통의 노하우와 물류 인프라 등을 접목시켜 국내 최대의 온라인 종합쇼핑몰로 키울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안트리에 따르면 놀부닷컴은 업계 점유율 35%로 지난 2년 연속 패션잡화 부문 1위 쇼핑몰(랭키닷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사 브랜드인 '리코튼'을 론칭해 패션잡화뿐만 아니라 언더웨어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해 판매 규모가 늘어나는 중이다.

새롭게 문을 여는 종합쇼핑몰 놀부닷컴은 언더웨어, 패션잡화, 유아동, 스포츠 아웃도어, 생활 리빙, 화장품, 생활가전 등 7개 상품군에 걸쳐 총 7만여 개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2007년부터 양말, 타이츠, 레깅스, 스타킹 등 패션잡화를 제조·유통해온 놀부닷컴은 올해부터 새롭게 언더웨어 사업에 진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예정으로 대형마트에도 진출이 확정돼 있다.

또한 현재 인기 고공 행진 중인 KBS2 드라마 '광고천재 이태백' 등 3개 방송사 프로그램에 자사 브랜드 상품을 협찬 제작 공급하고 있다.

안진호 대표는 "종합쇼핑몰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패션잡화 쇼핑몰 1위였던 놀부닷컴이 종합쇼핑몰로 진입하는 순간 NH미켓 러쿠텐 등을 제치며 종합쇼핑몰 간 경쟁이 달아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70)8676-1600 1612

/신효송기자

“돈에 미친 세상 담았죠”

돈–어느 산업시완의 위험한 머니 게임 장현도 지음/새움 펴냄

"금융이라는 것에 판타지 파워는 없다. 극상위의 1%가 나머지 99% 위에서 군림할 뿐이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모습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 문학에서는 아직 낯선 금융·경제 소설을 두 번째로 낸 장현도(32·사진) 작가를 지난 6일 서울 신문로 메트로신문 사옥에서 만났다. 전작 '트레이더'에 이어 이번엔 '돈'을 출간했다. 작가는 고려대·미국 일리노이주립대 MBA를 졸업하고, 20대 중반까지 여의도에서 법인 브로커로 일하다가 비합법적 사금융업체인 '부티크'를 설립, 1년 만에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모집해 운용한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돈'은 본격적인 금융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금융에 대한 작가의 관점은 분명했다. "금융은 사기에 가까운 산업으로 봐야 한다. 보험이든 은행이든 사람들이 (금융기업에) 속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돈'은 또 어떤 의미일까. 작가가 보기에 돈은 갑(甲)이다. 돈으로는 이 세상에서 못 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1%의 갑이 있고, 반대편의 을(乙)은 이 돈을 얻기 위해 저마다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가 지금의 사회다.

사금융 운영 이력의 저자 국내 낯선 금융소설 펴내

소설 속 주인공인 조익현은 음에서 갑으로 올라서는 욕망을 실현하는 자다. 근사한 증권가 엘리트의 삶을 꿈꿨지만, 소심한 데다 연줄까지 없어 낮은 인센티브를 한탄할 뿐인 신입 브로커가 처음의 그다. 하지만 그는 손잡는 순간 막대한 이익금을 얻게 된다는 수수께끼의 인물 '번호표'의 존재를 알게 된다. 평범한 청년에게 다가온 뭉칫돈의 유혹이다.

작가는 이 같은 유혹이 "인생 역전의 기회일까, 아니면 파멸로의 초대장일까"라고 독자에게 묻는다. 그래서 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 소설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다.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가 장점인 이 책을 후다닥 읽어내린 독자는 허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양한 인물이 엮인 금융가 스토리를 읽는 재미만으로도 위무를 받을 수 있을 듯하다.

금융감독원 '사냥개' 한지훈, 익현을 열등감에 빠뜨리는 입시 동기 장석준, '몸 로비'로 유명한 3년 차 브로커 박시은 등 여러 인물을 교차시켜 돈이 종교인 현실을 리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글 사진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요시다 슈이치 지음/권남희 옮김/은행나무 펴냄

작가 요시다 슈이치가 다시 여행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내지에 연재한 단편소설과 에세이를 모은 책으로, 총 18편의 여행 이야기가 이야기자기하게 펼쳐진다. 슈이치는 여행의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떠남과 남겨짐, 또 다른 출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연, 낯선 곳이 주는 생경함과 신선함 등을 다채롭게 이야기한다.

30분 심플 베이킹
로레인 파스칼 지음/김정희 옮김/싸이프러스 펴냄

쉬 케이크, 타르트, 파이 등 약 100여 개의 다양한 베이킹 레시피를 소개한다. 또 로레인은 프로와 초보자들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환상적인 맛을 위해 숙성법, 팁 등 다양한 방법의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아놓았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저녁 파티, 사랑하는 사람과의 늦은 아침 식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레시피들이 기록돼 있어 로레인만의 독특한 메뉴를 또한 만나볼 수 있다.

김하중의 중국 이야기 1·2
김하중 지음/비전과리더십 펴냄

최장수 주중대사, 전 통일부 장관 김하중의 중국 이야기. 지연 조건과 역사적 환경,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인의 기질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집필했다. 또 개방의 혜택을 입은 도시와 혜택을 받지 못한 농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인 중국을 자세히 소개한 책이다.

이웃집 사기꾼
크리스티안 제프트·스테판 카를 공저/류동수 옮김/애플북스 펴냄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진화하는 거짓말쟁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높은 지능과 낮은 도덕성을 가진 얄미운 그들의 속마음이 이 책의 부제다. 뉴스를 장식하는 크고 작은 사기에 대해 사람들은 모순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책은 지금까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기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제가 사실, 이 영화처럼 청순 스타일

'7번방의 선물' 예승이 선생님으로 주목받는 정·한·비

"정한비가 누구야?"라고 묻다가도 "예승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다들 "아~"하고 반색한다. 스물일곱 살 중고 신인인 그가 영화 '7번방의 선물'로 충청의 숨은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청순함과 청초한 매력으로 700만 관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출연장면 10신 불구 강한 인상

127분의 상영시간 중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10신이 채 안 된다. 영화가 끝난 후 크레디트가 올라갈 때에는 한참을 집중해서 봐야 그의 이름을 겨우 발견할 수 있다. 특별한 대사도 없지만 예승(갈소원)을 보살피는 따뜻한 감성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자신은 물론 제작진과 관객,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신스틸러가 탄생했다.

"VIP 시사회 때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연기를 못한 것 같아 '다른 선배님들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뿐이었죠. 한 신에서 대사가 조금 편집된 것 말고는 편집 없이 거의 다 나와서 놀라기도 했고요."

실제 모습도 영화 속과 다르지 않다.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매력과 작은 얼굴, 차분한 성격을 지닌 전형적인 청순 미녀다.

"시나리오에 '천사 같은 선생님'이라고 캐릭터를 묘사해놨어요. 막연한 설명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저 항상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내 안에 없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물론 못된 부분도 있죠. 자세하는 말할 수 없고 그건 다음에 악역을 하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호호."

카메라 오디션을 보고 1주일 뒤 감독 오디션에 참가했다. 마침 출연진의 첫 대본 리딩이 열리는 날이었다. 최종 캐스팅이 안 됐지만 이환경 감독은 "온 김에 대사나 한번 맞춰 보라"고 주문했고, 많은 남자 배우들의 격려를 받으며 정신없이 리딩을 마쳤다.

"끝나고 식사 자리까지 쫄깃하게 쫓아갔어요. 그 자리에서 감독님이 조용히 최종 출연을 알려주셨죠. 첫 영화 출연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받아본 생애 가장 값진 선물이었어요."

2009년 '세남자'로 데뷔한 중고 신인

시나리오를 보고 어느 정도 흥행은 확신했지만 이렇게 잘될 줄은 몰랐다며 연신 미소를 감추지 못한다.

"친구들은 카메라 원샷까지 받을 정도로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며 저보다 더 기뻐해요. 제게 많은 도움을 줬던 실제 초등학교 교사 친구는 '나보다 더 선생님 같더라'며 축하해줬죠."

무엇보다 기쁜 건 드디어 부모님에게 자신의 직업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몇 편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그는 "부모님 주위 분들이 딸이 뭐하냐고 물을 때 가장 죄송스러웠다"며 "요즘은 아버지가 영화 홍보에 더 열심이시다"고 말했다.

> 감성연기로 신스틸러 등극
> 과거 아이돌로 데뷔할 뻔—
> 스펙트럼 넓은 배우 될래요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평범한 대학생이던 그는 3학년 때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히 연기자의 길을 택했다. 대형 기획사에 러브콜을 받아 아이돌 멤버로 데뷔할 뻔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2009년 tvN 드라마 '세남자'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데뷔했는데 후속 작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무수히 많은 오디션을 봤고, 불합격했다기도 작품이 엎어지기도 했죠. 열심히 했지만 늘 불안했고, 나보다 잘되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그렇게 3~4년을 보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었죠. 행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의 말대로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잡았고, 묵묵히 준비한 것들을 펼쳐낸 결과 큰 행운을 잡았다. 남들보다 늦게 연기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이번 영화로 '제2의 데뷔'를 했다"며 "평범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스펙트럼이 넓은 융통성 있는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와운드미디어) 디자인/정지영

정한비 프로필 출생 1986년 2월 22일 출생지 경북 포항 신장 165cm, 체중 44kg 혈액형 A형, 학력 경기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출연작 tvN '세 남자'(2009) KBS1 '천추태후'(2009) 일본 TBS 'K프로젝트'(2010) OCN '신의 퀴즈2'(2011).

star bag

중국 드라마 주연 캐스팅

배우 **박해진**이 중국 드라마 '멀리 떨어진 사랑'에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소속사는 12일 "중국의 유명 감독 주시 무기 박해진의 중국 데뷔작 '첸더더의 결혼기'를 보고 일 년여간 러브콜을 보냈다"면서 "박해진은 사랑했던 한 여자에게 배신당하면서 마음을 닫은 레스토랑 오너 심먼 역을 맡아 4월부터 촬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요리연구가 레이먼 킴과 결혼

배우 **김지우**와 요리연구가 레이먼 킴이 백년가약을 맺는다.

은에어 엔터테인먼트는 12일 "김지우와 레이먼 킴이 5월 13일 역삼동 라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올리브쇼-키친 파이터'에 동반 출연하며 호감을 쌓았고, 지난해 4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최근 상견례를 마쳤다.

월화극 '이태백' OST 참여

록밴드 **톡식**이 KBS 2 월화극 '광고천재 이태백'의 OST에 참여했다.

KBS1 '톱밴드' 시즌1의 우승팀인 이들은 12일 드라마 삽입곡 '제스트 어 펜 인 러브'를 공개했다.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구와타 케이스케의 곡을 리메이크한 이 노래는 주인공 이태백(진구)과 백지윤(박하선)의 러브 테마곡으로 쓰인다.

10트랙 넘는 정규앨범 발표

가수 **이효리**가 팬카페를 통해 정규앨범 발표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9일 자신의 팬카페인 효리두게더에 "디지털 싱글이나 미니앨범도 생각해봤지만 지금껏 정규앨범으로 역시이 난 만큼 계속 고집하고 싶다"면서 "여름에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 10트랙 넘는다고 지겨워 말고 더 들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그의 노래 들어 행복했다"

고 임윤택 추모 물결

11일 향년 33세로 세상을 떠난 울랄라세션의 리더 고 임윤택의 안타까운 죽음에 각계 인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가수이기 이전에 병마와 싸우고 꿈을 이뤄낸 희망의 상징이었던 고인을 기리기 위해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을 비롯해 강타·조정치-김현화-케이윌 등 연예계 동료들이 앞다퉈 빈소를 방문했다.

특히 싸이는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친 후 12일 오후 2시40분께 급하게 귀국해 빈소를 찾았다. 그는 울랄라세션의 미니앨범 1집 '아름다운 밤'을 작곡한 친분이 있다.

지난해 8월 고인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소설가 이외수는 임종을 함께 한 뒤 "오늘 같은 날까지 악플을 다는 X들을 보면 뾰루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고인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3' 출연 중 위암 투병 사실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시달리야 했다.

새벽까지 빈소를 지킨 디자이너 이상봉은 "울랄라세션의 롤버들이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받고 있다. 이제는 이들을 안아줘야 할 때"라고 상황을 전달했다.

'슈퍼스타K 3'의 심사위원단도 SNS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승철은 "그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 직접 가보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윤종신은 "너에게 준 것은 없고, 얻은 것밖에 없다"며 전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대신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팬들에게도 공개됐다. 14일 발인 후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유해가 안치될 예정이다.

/권보람기자 ikuin@metroseoul.co.kr

12일 오전 고 임윤택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울랄라세션 멤버 박승일·김명훈·군조·박광선(왼쪽부터)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고인과 절친 무대를 함께하던 가수 싸이(오른쪽)는 말레이시아에서 급하게 귀국해 빈소를 찾았다. /연합뉴스

틴탑 유럽팬 함성 어메이징!

프랑스공연장 최고 데시벨 5개 도시 투어 폭발적 반응

틴탑이 성공적으로 유럽투어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 최초로 유럽 5개 도시 투어에 나섰다. 2일 독일 쾰른, 3일 독일 도르트문트, 8일 영국 런던, 9일 프랑스 파리, 1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연했다.

9일 프랑스 르 트리아농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공연장이 생긴 이래 최고의 진동과 데시벨을 기록해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 이곳은 팝스타 리한나도 공연했던 파리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현지 공연 기획사 측은 "관객이 같이 뛰는 진동 때문에 스태프들이 장비를 잡고 있어야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탠딩 공연이라 관객들이 앞으로 몰리는 바람에 초반에 부상자가 한 명 생겨서 실려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전날 밤부터 길게 늘어선 현지 팬들 때문에 주변 가게에서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열기와 흥분의 도가니로 가득했다는 전언이다.

마지막 공연이 있었던 스페인 공연장 관계자 역시 "레이디 가가 공연보다 더 관객 소리가 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2일 귀국한 틴탑은 15일 첫 정규앨범의 수록곡인 '사랑하고 싶어'를 선공개한다. /유순호기자 suno@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SBS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뉴질랜드 편 녹화를 마치고 11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노우진, 김병만, 박보영. /뉴시스

"정글의 법칙, 목숨걸고 촬영"

출연진 귀국·조작논란 계속

조작 논란에 휩싸인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11일 오후 뉴질랜드 편 촬영을 마치고 귀국했다.

프로그램의 '족장' 김병만은 "목숨을 걸고 촬영했다. 진심을 알아달라"고 심경을 전했다. SNS에 '개방 프로그램'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킨 박보영 소속사 김상유 대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한 일"이라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 문명과 접촉한 적이 없는 것처럼 방송된 원시 부족이 한의점 쇼핑을 하고,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는 사진이 널리 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정글의 법칙'에 소개된 곳이 해당 지역의 관광 코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제작진은 "문명의 전파 속도가 틀려 원시성을 보존하고 있는 지역이나 원주민들은 역시 드물다. 도시화 된 이들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프로그램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논란 속에 전혀된 이번 '정글의 법칙-뉴질랜드' 편은 다음달 1일 정상 방송된다. /권보람기자 kwon@

웃음폭탄, 더 세게 더 자주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남자사용설명서

심란한 외모의 CF 조감독 최보나(이시영)에게 사랑은 먼 나라 이야기다. 잘난 척 대마왕인 한류스타 이승재(오정세)의 심기를 건드려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보나는 바닷가 노점상으로부터 '남자사용설명서'란 제목의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게 된다. 테이프 속 닥터스룹스카(박영규)가 가르쳐준 남성 공략 비법으로 지나가는 남자들은 물론 승재의 마음까지 빼앗기 시작하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

14일 개봉될 '남자사용설명서'는 줄거리만 놓고 보면 그리 색다를 게 없는 로맨틱 코미디다. 별 볼 일 없는 외모의 싱글 여성이 최대한 못생기게 보이도록 분장으로 미모를 가린 여주인공이 일과 사랑 모두를 쟁취한다는 내용은 로맨틱 코미디가 예로부터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는 설정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는 웃음의 강도와 횟수에서 같은 장르의 국내 어느 작품들을 훨씬 앞선다. 그 이유는 새내기 이원석 감독의 독창성 넘치는 연출과 남녀 주연의 관습적이지만 밉지 않은 호연 덕분일 것이다.

연애 쑥맥서 달인 변신 그림
B급 감성 로맨틱 코미디물
이시영·오정세 '환상 연기'

이 감독의 웃음 유발 스타일은 이를테면 관객들이 웃을 때까지 밀어붙이는 식이다. 썰렁한 농담에 물뚝와 송덩어 일어나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수차례 처리하고 '총알 탄 사나이' 시리즈로 유명한 주커 형제처럼 퍼즐 '월리를 찾아라'(실제로 이 퍼즐은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식으로 화면 곳곳에 깜짝하는 인물들을 몰래 심어놓는 등 자칫 유치해질 수 있는 개그를 용감하게 반복한다.

이처럼 과유불급으로 흐르기는 B급 감성의 코미디를 오히려 빛나게 하는 것은 키치적인 느낌의 '포장'이다. 팝아트 계열의 화려한 화면의 강이감을 '색채하고 원색으로 도배해' 쓸데없이(?) 리얼리티에 집착하는 관객들마저도 결국은 무장해제시키고야 만다.

물 만난 고기 이상으로 이제까지의 내공을 미음껏 쏟아내는 이시영과 오정세의 연기 화음 역시 볼거리다. 특히 오정세는 지난해 '내 아내의 모든 것'의 류승룡에 버금가는 희대의 코믹 남성 캐릭터를 선보이면서 히든카드로서의 제 몫을 120% 소화한다.

단, 지나치게 안전한 엔딩은 살짝 아쉽다. 그러나 무난함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즘 한국 영화계에서 비교적 독특한 '깡'의 로맨틱 코미디가 나왔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겠다. 15세 이상 관람가

뷰렌·아비치…세계적 뮤지션 온다

올 여름 록페스티벌 '풍년'

올 여름 서울 일대가 록페스티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다.

꿈 같은 여행과 결합된 감성 뮤직 페스티벌 '레인보우 아일랜드 2013 뮤직&캠핑'이 6월 7~9일 춘천 남이섬에서 먼저 포문을 연다. 올해 3회째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출신 록밴드 트래비스를 비롯해 4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한 클래지콰이, 이디오테잎, 빈지노 등 쟁쟁한 라인업을 공개하며 음악 팬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남이섬은 평소 관광객의 캠핑이 불가하지만 페스티벌이 열리는 기간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MF코리아)'가 6월 14~15일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지에서 그 열기를 이어간다.

전 세계 DJ 순위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네덜란드 출신의 아민 반 뷰렌, 올해 '톱 100 DJ' 순위 3위를 차지하고 현재 일렉트로닉 뮤직 신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아비치, 2012 'UMF 코리아'에서 피날레를 장식한 칼 콕스 등 세계 최정상의 DJ 40여 팀을 만날 수 있다.

지난 7일 오픈한 티켓 3000매가 이미 매진돼 주최사인 뉴벤처 엔터테인먼트는 추가분 판매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난 4년간 음악 팬들의 감성을 자극했던 '지산밸리 록페스티벌'은 올해부터 '안산밸리 록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꾸고 7월 26~28일 안산시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뮤지션 80여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8회째를 맞은 '인천펜타포트록 페스티벌'도 올해 송도로 무대를 옮겨 8월 2일 막을 올린다. 지난해 출발한 '슈퍼 소닉'은 8월 14~16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아민 반 뷰렌

아비치

칼 콕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전통 창작·음악극 공연 '러시'

해외 라이선스 공연의 홍수 속에서 전통 소재의 창작극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끈다.

19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개막할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사진)는 고전 소설 '배비장전'을 원작으로 해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이다.

제주를 배경으로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기생 애랑과 시벽한 아내를 향해 순정과 지조를 지키려는 배비장의 운명적인 사랑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신임목사의 이야기를 그렸다.

16일 PMC대학로자유극장에서 시작할 '날아라, 박씨'는 유지컬 제작 과정을 그린 현대극이지만 극중극 '박씨부인전'을 통해 전통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공연의 하이라이트에서 관객은 극중극의 화려한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 20일부터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릴 '2013 어린이 음악극 페스티벌'도 전통을 소재로 한 어린이 음악극들을 무대에 올리는 축제다.

/박성훈기자 zen@

'마마, 돈 크라이' 2인극 재탄생

콘서트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가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뱀파이어의 위험한 매력에 빠져 점점 마멸로 내몰리는 프로페서V의 이야기를 록 콘서트처럼 구성한 이 작품은 다음달 9일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재공연된다.

이번 공연에서 프로페서V 중심의 1인 모노극에서 뱀파이어 이야기가 강화된 2인극 구조로 변화를 준다. 신곡 4곡을 추가해 총 26곡으로 구성하고, 무대를 원형 극장으로 옮겨 콘서트 현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프로페서V 역은 송용진·허규·임병근이, 뱀파이어 역은 고영빈·장현덕이 맡는다.

/박성훈기자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9 Where do you live?

이웃과 대화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점으로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저는 잭의 옆집에 살아요.
얼마나 오래 여기에 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를 알아왔어요.
저는 그 책을 이미 읽었어요.
아주 오래 영어를 배워왔나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I live next door to Jack.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I've known her since high school
I've already read that book
Have you studied English for very long?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얼마나 오랫동안 have you lived here, Henry?
B I've lived here for about 5 years.

정답 How long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ve already [read that book / seen that show]. I want to go to bed now.
2. I've known him [since high school / for 10 years]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부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prominently	부 눈에 잘 띄게, 두드러지게	prominently displayed 눈에 잘 띄게 진열된
respectfully	부 정중히, 공손히	I respectfully ask you to fill out the form 양식을 작성하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securely	부 안전하게, 단단히	Seat belts should be securely fastened 좌석 벨트는 단단히 매야 합니다.
simultaneously	부 동시에	released simultaneously in the US and in Canada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 출시된
solely	부 오로지, 혼자	based solely on applicants' qualifications 오로지 지원자들의 자격 요건에 근거하여
strictly	부 엄격히	It is produced in strictly limited quantities 그것은 엄격히 제한된 양만 생산된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6 Express an opinion

동의 여부 질문 유형 파악하기

"논제에 대해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는 문제 유형이다. 논제에 대한 입장이 agree인지 disagree인지를 선택하고 답변 틀에 맞춰서 답변한다.

질문의 일부를 따라 읽기 (Echoing)

Some peopl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is opinion? Giv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Some peopl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 에코잉

(의견 A) I agree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의견 B) I disagree that it is necessary to learn physical education in high school.

레슬링 올림픽서 퇴출

2020년 25개 핵심종목 제외 '날벼락'… '국기' 태권도는 잔류

올림픽 종목에서 국기 태권도가 살아남고 레슬링은 제외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0년 대회부터 채택할 올림픽 핵심종목(Core Sports)에 태권도를 포함한 25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IOC는 레슬링을 올림픽 핵심종목에서 제외하는 예상 밖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에 퇴출이 결정된 레슬링은 5월 열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IOC 집행위원회에서 야구·소프트볼, 가라데, 우슈, 롤러, 스쿼시, 스포츠클라이밍, 웨이크보드 등 7개 후보 종목과 함께 2020년 올림픽 합류를 놓고 경합을 벌여야 한다.

WBC 대표팀 격전지 도착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하는 류중일(가운데)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2일 대만 타이베이 도원 공항에 도착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위는 8개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는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릴 IOC 총회 때 안건으로 상정, 2020년 올림픽 종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자이니치'와 WBC 태극마크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일본에서 자이니치(在日)는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가진 교포들을 일컫는다. 즉 일본에 거주한다는 의미의 앞 단어가 교포를 칭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어감이 좋지 않다. 일본 제국주의의 아픈 역사가 담긴 단어이다. 그 자이니치의 뿌리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WBC 대표팀이 12일 대만 전지훈련을 떠났다. 굳이 '자이니치'와 WBC를 결부시킨 이유는 그들이 왜 모국의 태극마크를 달지 않았는지 아쉽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야구에는 뿌리가 한국인 선수들이 수두룩하다. 귀화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WBC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여미 90년대까지 재일교포 선수들은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프로야구 발전에 많은 힘을 보탰다. 그러나 지금껏 태극마크를 단 교포 선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목외의 WBC 모국 대표로 참가한 선수들은 10명이 훌쩍 넘는다. 야쿠르트 내야수 일본계 마쓰모토 유이치는 자신이 태어난 브라질 대표로 출전해 관심을 모았다.

무엇보다 교포 선수가 참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문호를 확실하게 개방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일본에서 뛰고 있는 교포 선수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선언과 함께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한두 명만 참가해도 그 상징적인 효과는 클 것이다.

교포 선수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일본에서 한국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선수들은 드물다. 태생을 밝히면 돌아오는 불이익이 컸다. 일본 사회가 가진 폐쇄성의 산물일 것이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는데 굳이 뿌리를 들춰낼 필요가 없다는 생도 있을 것이다.

요코하마에서 뛰고 있는 외야수 모리모토 히초리는 귀화했지만 자신이 한국인임을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 한국 무대뿐만 아니라 WBC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친 적도 있다.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뛰고 싶다면 그들을 위한 자리는 필요하다. 다음 대회에서는 그들이 모국을 위해 뛰는 장면을 보고 싶다.

/OSEN 야구전문기자

'독도 세리머니' 박종우 동메달 되찾았다

2012 런던올림픽 남자축구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쳐 메달 수여가 보류된 박종우(23·부산, 사진)가 동메달을 되찾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2일 스위스 로잔의 로잔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박종우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보류된 동메달을 주기로 결정했다. IOC는 또 대한체육회에 선수들의 올림픽 헌장 준수를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하는 올림픽 헌장 입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수립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별도의 행사를 열지 말고 박종우에게 동메달을 전달하라고 권고했다.

이로써 박종우는 지난해 8월 11일 일본과의 런던올림픽 3·4위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벌인 '독도 세리머니' 때문에 IOC로부터 동메달 수여가 보류된 지 6개월 만에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다. 당시 박종우는 관중으로부터 건네 받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경기장을 내달렸다. /연합뉴스

추신수 연봉 81억

추추 트레인 추신수(31·신시내티, 사진)가 연봉 조정 청문회에 가기 전 구단과 1년간 737만5000달러(약 80억7000만원)의 연봉계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연봉인 490만 달러보다 무려 247만5000달러(약 50.5%) 오른 금액으로 구단 측이 제시한 675만 달러와 추신수가 요구한 800만 달러의 중간 지점에서 서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는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이다. 박찬호는 텍사스 시절 한 해 1500만 달러를 받은 바 있다.

/김민준기자 mjkim@